



# 미국서 태권도 진수 뽐냈다

###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 레이크잭슨·갤버스턴 시 시범공연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선수부 포함 33명)이 미국 현지에서 태권도성지 무주의 이름을 당당히 새기고 있다.

미국 갤버스턴 시에서 개최되는 2017 US 마스터스 태권도대회에 초청을 받아 출국했던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은 7일까지 휴스턴과 앵글턴 시에서도 시범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3일 레이크잭슨 시 브라운스포트대학 강당에서 태권도시범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휴스턴 김형길 총영사, 이진영 휴스턴 태권도협회장, 레이크 잭슨 시 조 라인하트 시장, 중남부한인협회 김수명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5일에는 갤버스턴 시에서 열린 US마스터스 태권도대회에 참가해 1,000여 명의 선수와 관람객들 앞에서 겨루기와, 품새, 격파, 태권체조 등 고난이도의 현란한 시범을 선보이며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각인시켰다.

태권도 수련생들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현재 휴스턴 시에 머물고 있는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원들은 세계적인 태권도 지도자들을 만나 수련을 하고 미국항공우주국(나사)을 방문하는 등 문화체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단의 최요영 학생(중양초 4년)은 "세계적 대회에서 시범을 보인다고 해서 많이 떨렸는데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시고 하니 힘이 났다"며 "태권도의 나라, 태권도 성지에서 태권도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돌아가면

더 열심히 운동해서 태권도원을 알리고 무주를 대표하며 한국을 드높이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US 마스터스 태권도대회장과 일정별 방문지 등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다국어로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와 CD, 그리고 기념 브로치 등을 배부하는 등 태권도원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시범단과 동행한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태권협회 임원들은 3일 앵글턴 시 제이슨 페레스 시장을 만나 태권도시범단 공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에는 현지 대회관계자와 사범, 홈스테이 가정을 초청한 무주군수주제 만찬을 열었다.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 코치진 등은 이날 US 마스터스 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문화특특, 꿈이쑥쑥' 문화체험활동

###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일 무주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아동 및 청소년 180명을 대상으로 천안시에 위치한 테던 패밀리 워터파크에서 문화체험활동 '문화특특, 꿈이쑥쑥'을 진행했다.

청소년문화체험활동 '문화특특, 꿈이쑥쑥'은 농촌지역의 환경적 여건상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무주관내 아동·청소년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미래에 긍정적인 힘을 키워, 이를 통해 자기 주도적인 역할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문화체험활동은 전북도 사업비와 지역 내 후원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후원금은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무

주양수발전소가 2008년 티셔츠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9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체험활동비로 후원금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법무부 봉사단위원회 전주 지역 무주지구 협의회 회원들이 후원에 동참하여 질 높은 문화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의 지속적인 후원사례는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정분 소장은 정서적 민감한 시기에 탈선 우려가 있는 농촌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상담센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자원봉사센터

### 도내 시·군 평가 1위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전북도가 주관한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간 자율적 경쟁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리자에 대한 격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 네트워크 형성, 국정평가, 공무원 자원봉사 참여율, 조직운영 등 5개 분야 9개 항목으로 평가됐다.

특히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종교행사단체와 함께 24개 봉사단을 운영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나눔 활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휴가철 맞아

###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장수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에 대한 산지오염, 불법야영, 불법상행위 등의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단속반을 편성,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와룡자연휴양림, 방화동자연휴양림, 방화동가족휴가촌, 덕산계곡, 토목동계곡, 지지계곡 등 자연의 시원함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산간고원의 청정 지역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없는 전국 최고의 휴양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군은 행정력만 아영인과가 각지에서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오염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산지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함께 실시, 깨끗한 장수의 이미지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은 이달 말까지 보건료원 6층에서 인지재활 뇌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7일 시작된 뇌운동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13:30~15:00)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2017 치매조기검진사업 결과 인지저하, 치매고위험군, 경증치매인 지역 어르신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첫날인 7일에는 일상생활활동검사를 비롯해 일상생활능력기능, 노인우울척도 등을 검사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치매예방체조를 비롯한 인지훈련매뉴얼에 따른 지남력, 기억력, 시지각력, 집중력, 계산력, 문제해결력, 회상능력 향상 훈련과 요리교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 주계파출소, 편의점 내 음주운전 금지 자체홍보를 제작 배포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 김수기 소장이 7일 무주읍 관내 편의점 10여개소를 방문하여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찰서 반디폴 캐리커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체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최근 주민들이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 후, 주변에서 음주를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음주는 결국 음주운전으로 연결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 등 사회적 손실로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단속이 필요한 시기에 김소장은 편의점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변에서 반딧불이까지 음주 후,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방침임을 알리고 음주운전고발신고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홍보와 동참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서울시 '청소년 교류' 진행

진안군과 서울시 청소년 농촌봉사활동 봉사단이 7일부터 9일까지 진안고원치유숲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도농 청소년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청소년 40여명의 진안 방문은 '도농 청소년 교류사업'의 일환이다. 학생들은 진안의 역사, 문화, 자연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예정이다.

특히 정찬면에 농촌 일손돕기를 하고 마이산을 직접 견학하여 타포니 현상과 함께 마이산의 세계적인 가치를 재발견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7일 일손돕기를 하는 서울시 학생들이 격려하기 위해 유근주 부군수가 현장을 방문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농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초보 농부에 인기

### 1~2년 생활하며 영농체험 가능... 시범농장 텃밭 무료 제공

진안군에서 제공하는 체재형 가족농원이 초보 귀농인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체재형 가족농원은 매년 1월 입주자 신청을 받아 설명회, 입주자 선정 워크숍 등을 통해 선발한다. 입주자가 확정되면 3월부터 1년간 가족농원에서 생활하면서 영농체험을 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2012년 첫 입주인 8세대로 시작한 체재형 가족농원은 현재까지 48세대 100명의 보금자리가 됐다.

특히 가족농원 입주자들에게 시범농장 텃밭을 무료로 제공해 상추, 토마토, 고추,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다.

또한 가족농원에 입주한 귀농인들은 월회 정기모임을 통해 가족농원 공

동작업을 하며 서로의 의견도 나누고 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나눈다.

입주자 대표 이상국(57)씨는 "하루 하루 키우는 농작물을 보며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하다"며 "하나하나 과정을 한 후, 모종을 심고 수확을 하는 과정은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소중한 기쁨이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